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경제공간 변화와 유형 분류

손승호*

The Change of Economic Space and the Classification of Urban-Rural Consolidated Cities in Gyeonggi-do

Seungho Son*

요약 : 우리나라에서 도농복합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11개 도농복합시를 대상으로, 도시내 산업입지에 따른 경제공간의 변화가 어떻게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경기도의 도농복합시에서는 산업활동의 입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분석 대상에 포함된 모든 도시의 사업체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별 도시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경제공간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이천시와 안성시를 제외한 9개 도시에서 도시지역으로의 경제활동 쏠림현상이 심화되었다. 도시지역으로의 경제활동 쏠림현상은 남양주시·포천시·용인시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주요 산업부문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입지 변화를 토대로 실시한 도농복합시의 유형화에서는 5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경제공간의 변화 유형은 도농격차 심화형, 도시지역 성장둔화형, 농촌지역 성장형, 도농균형 성장형, 도시지역 성장주도형 등이다. 경기도의 도농복합시에서는 거대도시 서울이나 도시화 수준이 높은 도시에 접한 도시일수록 도농격차가 심화되었고,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시일수록 도시지역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었다.

주요어 : 도농복합시, 도농접경지역, 경제공간, 도시지역, 농촌지역

Abstract : The urban-rural consolidated city has emerged in order to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urban region and rural region. Targeted 11 urban-rural consolidated cities in Gyeonggi Province, this paper investigated the changes of economic space in accordance with the location of industrial activities. The number of establishments has increased in all cities. From the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economic space divided into urban regions and rural regions, concentration phenomenon of economic activities in urban regions was strengthened in 9 cities with the exception of Icheon-si and Anseong-si. Concentr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urban region was noticeable in Namyangju-si, Pocheon-si, and Yongin-si. 5 types were derived from the classification on the basis of locational changes of economic activities in urban region and rural region. They are 1) urban-rural gap deepen type, 2) urban region growth slowdown type, 3) rural region growth type, 4) urban-rural balanced growth type, and 5) urban region-led growth type. While urban-rural gap of the cities close to highly urbanized city or metropolis has intensified, the growth of urban region was weakened in the cities located away from the metropolis.

Key Words : urban-rural consolidated city, urban-rural fringe, economic space, urban region, rural region

* (사)미래한국영토포럼 본부장(Head Manager, Korea Future Territory Forum, urbgeo@hanmail.net).

1. 머리말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도농복합형 도시가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등장하였다. 그리고 농촌적 성격이 강한 지역에서 인구규모가 증가하고 도시적 산업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하나의 군 전체를 시로 승격시킨 도농복합형 도시도 탄생하였다.¹⁾ 경기도의 도농복합시는 수도권의 광역화와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는 주변부에 주로 자리한다.

도농복합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하나의 행정단위로 통합시킴으로써, 각 지역의 장점을 활용하여 상호보완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도시내에서 도농균형발전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까지는 행정구역간 경계조정과 구역 신설이 대체로 도농분리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1995년 이후부터는 도농통합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도농지구개발론에 입각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단일의 공간으로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자는 목표를 포함한다(임정빈·장우영, 2009, 238). 도농통합 발전전략은 경제적·지리적·정치적·행정적 측면에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경제적 접근은 도시내에서 종합적인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내포한다(김선명·김기현, 2008).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은 국지적인 차원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제성장의 격차를 해결할 수 있으며, 도시의 성장정책을 농촌지역으로까지 광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상생발전이 가능하다(Rigos, 1995; Becker, 1996). 그러나 도농복합시의 경제공간은 성장거점으로 기능하는 중심시가지에서의 개발효과가 주변의 농촌지역으로

로 파급되지 못하고, 도시지역으로의 역류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제공간의 불균등화가 진전된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자 탄생한 도농복합시는 1995년 지정 이후부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박경훈 등, 2000, 37). 생활권이 분리되지 않고 행정적으로 통합된 지역이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었지만(Rusk, 1993; Downs, 1994),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통합이 생활권의 경제성장을 유인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Carr and Feiock, 1999; Blair et al., 1996). 즉 여러 가지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심시가지와 농촌지역이 하나의 행정체제하에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이에 반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통합되더라도 중심도시의 성장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도농통합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도시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삼아 개발효과가 농촌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했던 도농복합시의 실제 상황은 균형발전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진 느낌이다. 특히 수도권에 자리한 도농복합시에서는 기존에 시가지가 발달하였던 도시지역의 성장은 두드러진 반면 농촌지역에서의 성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시의 인구규모 변화에 주목한 손승호(2013)는 전국에 설치된 49개 도농복합시에서 도농간 차별적인 인구성장이 나타났음을 밝혔다. 인구성장은 도농복합시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다소 상이한 패턴을 나타내었는데, 수도권에 자리한 도시에서는 대체로 도시지역의 인구증가가 현저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별적 성장이 뚜렷하였다.

우리나라의 도농복합시 31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조석주·이재기(2000)는 행정비용의 절감이라

는 관점에서 도농통합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홍준현(2005)은 인구성장이 라는 관점에서 도농통합이 도시내의 균형성장 및 도시간 균형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지만, 균형성장이 우리나라의 모든 도농복합시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다. 이외에 우리나라의 도농복합시를 사례로 도농간 지역격차의 완화 또는 심화 등을 분석한 일련의 연구에 따르면, 도농복합시에서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공간 구조가 재편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정미영, 1997; 김주숙·김은영, 2003; 오영석·이곤수, 2006).

도농복합시를 대상으로 도시변화의 성격이 유사한 도시들끼리 유형화가 시도된바 있다. 박경훈 등(2000)은 인구규모·농업구조·생활환경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경상북도의 10개 도시를 ‘과수농업중심형’, ‘중·소규모 농업형’, ‘침체농촌형’, ‘도시화 진행형’, ‘도시·농촌 혼재형’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도성환(2000)은 도농복합시의 용도지역 지구제에 의거한 4대 토지이용 자료(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용지)를 토대로 ‘전형적인 농업도시’, ‘주거중심형 통합시’, ‘자연자원 보전형 통합시’, ‘공업중심 통합시’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양재·정영현(2005)은 33개에 달하는 다양한 지표에 인자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도농복합시의 유형을 ‘계속 좋아지는 도시’, ‘나빠졌다가 좋아지고 있는 도시’,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있는 도시’, ‘계속 나빠지는 도시’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농촌지역의 침체와 함께 도시 전체의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농복합시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유형화는 도농복합시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였다는 단점을 지닌다. 즉 도농복합시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 또는 도시공간의 재구조화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내의 도

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별개의 단위로 인식해서 도농간의 발전 격차가 나타나는지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도농복합시의 유형화를 실시함으로써 도농 균형발전 여부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역발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입지 및 경제기반의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김성록, 2012, 424). 게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에서의 규제가 서서히 완화됨에 따라 경기도의 도농복합시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입지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였다(이현주 등, 2011, 303).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수도권에서는 1994년부터 공장총량제가 실시되어 도시별로 제조업 입지에 제한을 받고 있다. 공장총량제가 경제활동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입지만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총량제와 산업입지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입지가 인구성장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에 차별적인 패턴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도농복합시의 애초 목표에 부합하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시내에 입지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산업활동의 입지패턴이 유사하게 전개되는 도시끼리 유형화를 통해 수도권에 자리한 도농복합시의 경제공간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농복합시의 행정체계 및 인구규모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두 번째로 도농복합시의 사업체수 분포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산업부문에서 나타난 사업체의 입지변화를 토대로 경제공간 변화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경기도는 모두 28시 3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행정편제상 도시지역으로만 이루어진 도시가 16개이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혼재하는 도농복합시는 12개이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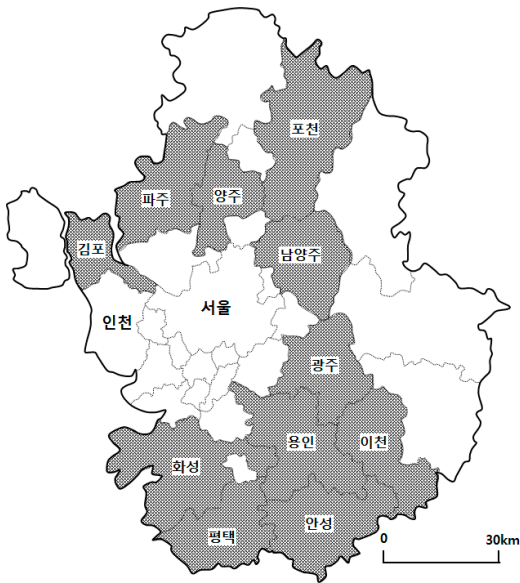


그림 1. 분석대상 도농복합시

구분은 읍과 동을 도시지역으로, 면은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도농복합시 가운데 2013년 9월에 시로 승격한 여주시는 제외하였다(그림 1). 경제공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시점은 2000년과 2012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구분은 분석대상 시기의

행정체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성장 과 함께 2000년에는 농촌지역으로 분류되었던 곳이 2012년에는 도시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경제활동은 각 시에서 조사발표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산업대분류를 기준으로 삼았고, 군집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도시의 유형화가 이루어졌다.

2. 도시 성장과 사업체의 입지 변화

1) 도시지역의 확대와 인구변화

경기도의 도농복합시는 지정 초기만 해도 도시 계획구역의 비율이 높지 않아 농촌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도시화가 진행되는 수도권에서 도시적 성격과 농촌적 성격을 가진 중간지대의 속성이 강한 편이었다(이상대 등, 1998, 11). 분석대상 기간 동안 11개의 도농복합시에서는 비교적 빠른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곧 면이 읍으로 승격하거나 면에 속한 일부 지역이 분리되어 동으로 신설되는

표 1.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행정체계 변경

도시	면에서 읍으로 승격	동 신설	행정체계(2012년)
광주시	오포(2001), 초월(2004), 곤지암(2004)	별내(2011)	3읍 4면 3동
김포시	통진(2004), 고촌(2009), 양촌(2011)		3읍 3면 5동
남양주시	진건(2001), 오남(2001)		5읍 4면 7동
안성시	공도(2001)		1읍 11면 3동
양주시			1읍 4면 6동
용인시	포곡(2005)		1읍 4면 24동
이천시			2읍 8면 4동
평택시	안중(2002), 포승(2006)		3읍 6면 13동
포천시			1읍 11면 2동
화성시	우정(2003), 향남(2007)		3읍 10면 10동
파주시	조리(2002)		4읍 9면 7동

주: () 안은 승격 또는 신설된 연도를 나타냄.

등의 행정체계 변화를 수반하였다. 광주시·김포시·남양주시·안성시·용인시·평택시·화성시·파주시 등지에서 면이 읍으로 승격하거나 동이 신설되었다(표 1).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들 도시에서 모두 15개의 면이 읍으로 승격하였고, 남양주시 별내면에 속하였던 2개의 리가 별내동으로 분리 신설되었다.²⁾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를 제외한 도농복합시에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체계의 변경이 있었던 셈이다.

도농복합시에서의 읍 승격은 서울에 인접한 도시에서 활발하였다. 특히 수도권내에서 발생하는 교외화 현상의 진전과 함께 신흥 주거지역 및 고용중심지로 성장한 광주시·김포시·남양주시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또한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수도권의 주변지역 가운데 택지조성 사업의 진행과 함께 인구가 크게 증가한 안성시·평택시·화성시·파주시 등지에서의 읍 승격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이들 도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도시권에서 도시적 성격과 농촌적 성격이 공존하던 도농접경지역(urban-rural fringe)에 해당한다.

도농접경지역은 산업, 상업, 여가, 건설 등의 여러 경제적 관점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다양한 경쟁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이 지역은 저렴한 지가를 비롯하여 교통네트워크에의 양호한 접근성, 넓은 개발가능 공간, 공장부지는 물론 주거용지·쇼핑센터·여가시설 등이 입지함으로써 대도시의 교외화와 함께 시가지의 충전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다. Pryor(1968)는 도농접경지역을 중심도시에 연결해 있으면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의 도시화 양상이 뚜렷한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경기도의 도농복합시는 거대도시 서울에 접해 있으면서 도농접경지역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곳이라 할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도농접경지역의 특징적 현상이 잘 나타난다.

대도시 주변지역의 인구증가는 교외화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인구분포 및 사업

체 입지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의 변화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즉 중심도시의 인구와 활동이 주변지역으로 재배치되는 과정을 절대적 분산과 상대적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서구도시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대도시 주변지역의 도시기능이 다양화하면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구분이 모호해졌다(Johnson, 1974). 이는 대도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와 함께 산업기능에도 변화가 생겨남을 의미한다.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11개 도농복합시 전체의 인구가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25.5%에서 2012년에는 34.0%로 상승하였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었던 용인시·화성시·남양주시·파주시 등지의 인구증가가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포천시·이천시·안성시 등지의 인구증가는 크지 않았다. 도농복합시 전체적으로 인구증가 현상이 뚜렷한 것은 도시화의 수준이 낮은 농촌지역이 택지개발과 함께 주거단지로 개발됨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두 시기에 대하여 11개 도시의 도시지역 인구나 농촌지역 인구의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11개 도시 전체의 도시지역 인구 비중은 2000년의 62.1%에서 2012년에는 84.6%로 상승하였다.

도시지역의 인구 비중은 도시별로 차이가 있는데, 김포시·광주시·용인시에서는 90%를 상회하였으며 가장 비중이 낮은 포천시에서도 도시지역의 인구 비중이 52%에 육박하였다. 이처럼 경기도의 도농복합시에서는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도시지역의 인구 비중이 월등하게 높아졌다. 도농간 인구분포의 변화에서는 인구증가 현상이 컸던 도시일수록 도시지역의 인구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인구증가 폭이 크지 않았던 안성시·이천시·포천시와 같은 경기도 경계부의 도시에서는 농촌지역의 인구비중이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농촌인구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2) 사업체의 입지 변화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비롯한 고용의 분산현상이 나타나고 교외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000년에 50만 8,916개이던 사업체가 2012년에는 75만 1,108개로 증가하여, 47.6%에 달하는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일반산업 부문이 2000년대에 크게 성장하였다.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화성시에서 사업체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고양시·용인시·성남시·시흥시 등지에서도 사업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도농복합시에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2000년 대비 2012년의 사업체수 증가율을 각 도시별로 산출한 결과, 남양주시의 증가율이 43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화성시(307.5%), 김포시(252.6%), 광주시(246.0%), 용인시(216.5%) 등지에서 2000년 대비 사업체수 증가율이 높았다(표 2). 경기도에서 2000년 대비 2012

년의 사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율이 높은 상위지역에 주요 도농복합시가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도농접경지역에 자리하여 수도권 중심도시인 서울로부터 접근성이 미약한 평택시·이천시·포천시 등지의 사업체수 증가율은 경기도의 평균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다. 11개의 도농복합시에 입지한 사업체수가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28.6%에서 2012년에는 34.6%로 증가하였다.

개별 도시의 사업체수가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에서 증가하였는데, 12곳 가운데 7곳이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도농복합시에 해당하였다. 사업체수 증가율이 경기도의 평균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던 평택시·이천시·포천시·양주시 등지에서는 그 비중이 2000년에 비해 0.2~0.3%p 감소하였다. 반면 화성시에서는 2.8%p 증가하여 경기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용인시(1.2%p), 남양주시(0.7%p), 파주시(0.6%p) 등지에서 2000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경기도의 도농복합시에서 사업체 입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 2.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사업체수 변화

(단위: 개소, %)

도시	연도	2000년			2012년			변화율 (B×100/A)
		도시지역	농촌지역	전체(A)	도시지역	농촌지역	전체(B)	
광주시		3,106	5,259	8,365	18,3004	2,274	20,578	246.0
김포시		1,688	6,380	8,068	14,737	5,643	20,380	252.6
남양주시		4,955	1,767	6,722	25,828	3,128	28,956	430.8
안성시		4,286	3,497	7,783	7,005	6,031	13,036	167.5
양주시		5,243	3,550	8,793	8,673	5,613	14,286	162.5
용인시		13,481	4,963	18,444	33,095	6,830	39,925	216.5
이천시		7,409	2,425	9,834	9,644	3,916	13,560	137.9
파주시		6,796	4,751	11,547	17,430	4,965	22,395	193.9
평택시		17,023	4,159	21,182	24,782	4,063	28,845	136.2
포천시		4,870	6,446	11,316	7,389	8,232	15,621	138.0
화성시		3,630	8,817	12,447	24,645	13,623	38,268	307.5

자료: 각 도시 통계연보.

것으로, 최근 들어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교통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경제활동의 입지가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도내의 모든 도농복합시에서 사업체수가 증가하였지만, 도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개별 도시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체 입지 변화는 각기 다른 특징을 내포하였다. 즉 도농복합시를 구성하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에 사업체 입지에서 극화현상 또는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1개의 도농복합시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입지 변화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에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사업체 입지가 활발한 도시가 여럿 있었다. 김포시·화성시·광주시·포천시 등 4개 도시에서는 농촌지역에 입지한 사업체가 도시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수에 비해 많았다. 특히 김포시와 화성시에서는 농촌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의 비중이 도시 전체의 70%를 넘어섰을 정도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서의 사업체 입지가 활발했다. 이에 반해

평택시·이천시·남양주시·용인시에서는 도시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0%를 상회하였다. 즉 도농복합시라 할지라도 도시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사업체 입지 패턴에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체의 입지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공간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사업체 입지 변화의 일반적인 경향은 개별 도시에서 도시지역에서의 비중 증가와 농촌지역에서의 비중 감소이다. 즉 2012년 들어 11개의 도농복합시 가운데 안성시와 이천시를 제외한 9개 도시에서는 도시지역에 자리한 사업체수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안성시와 이천시에서는 도시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수의 비중이 2000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에 격차가 다소 완화되었다(그림 2). 그러나 이들 두 도시에서 도시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p와 4.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포천시는 도시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수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에도 2012년에 농촌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수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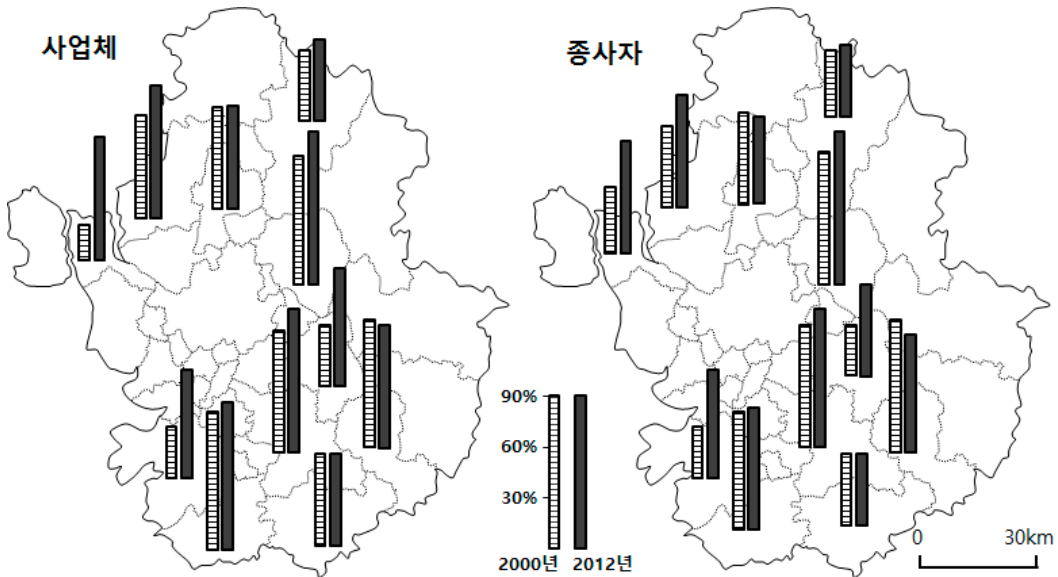


그림 2. 도시지역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중 변화

중이 더 높게 형성된 유일한 도시이다. 이와 같이 경기도에 자리한 도농복합시에서는 이천시·안성시·포천시를 제외한 도시에서 경제활동의 도시지역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에 도시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수의 비중이 가장 컸던 도시는 평택시로서, 평택시 전체 사업체의 80.4%가 도시지역에 입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이천시(75.3%), 남양주시(73.7%), 용인시(73.1%) 등지에서도 도시지역에서의 사업체 입지가 탁월하였다. 이에 반해 김포시(20.9%), 화성시(29.2%), 광주시(38.1%) 등지는 도시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수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12년 들어 각 도시에서 사업체수가 증가하였고 안성시를 제외한 10개 도시에서는 도시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도시지역의 사업체수 증가가 현저한 도시로는 김포시·화성시·광주시 등지를 꼽을 수 있다. 이들 도시는 2000년에 도시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수의 비중이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을 가졌지만, 2012년에는 도시지역의 사업체수 비중이 매우 높게 형성되었다.

한편 종사자수에서는 2000년에 광주시, 김포시, 안성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에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종사자수가 더 많았다. 도시지역의 종사자수가 도시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은 이천시(77.2%), 남양주시(77.0%), 용인시(72.9%) 등지에서 상당히 높았고, 화성시(29.2%), 광주시(30.6%), 김포시(39.9%), 포천시(40.0%)에서는 도시지역 종사자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었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11개의 도농복합시 가운데 도시지역에서 종사자수의 비중이 감소한 곳은 안성시(-0.0%p), 양주시(-3.5%p), 이천시(-8.9%p) 등 3곳에 불과하고, 8개 도시에서는 도시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의 종사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개별 도시에서 도시지역의 종사자수 비

중 증가는 화성시(32.8%p), 김포시(27.1%p), 광주시(22.8%p), 남양주시(12.3%p) 등지에서 탁월하게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종사자수 비중이 높았던 포천시에서는 도시지역에서 종사자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에 도농간의 격차가 다소 완화되었다. 남양주시·용인시·평택시는 도시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이 2012년 들어 심화되었고, 화성시·김포시·광주시의 종사자 분포는 농촌지역 우세에서 도시지역 우세로 반전현상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도농복합시에서 도시지역의 사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내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수 비중의 격차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의 사업체수 비중에서 농촌지역의 사업체수 비중을 뺀 값을 비중의 격차로 간주하였다. 이는 개별 도시내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사업체 입지의 불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비중의 격차가 정(+)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도시지역으로의 사업체 집중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중의 격차가 부(-)의 방향으로 커지는 것은 농촌지역으로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격차가 100을 나타내면 도시지역에만 사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0을 나타내면 사업체수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동일하게 입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도농복합시의 개별 읍면동별 편차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각각 하나의 단위로 구분하여 비중의 격차 변화를 고찰하였다.

2000년에서 2012년의 사업체 입지와 관련한 도농간 비중의 격차는 이천시와 안성시를 제외한 9개 도시에서 정(+)의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에 도농간 비중의 격차가 크게 형성되었던 도시는 남양주시(78.4), 포천시(71.8), 용인시(65.8) 등이다. 이천시는 50.7에서 42.2로 감소하였고, 안성시는 10.1에서 7.5로 감소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사업체의 입지 변화에서 이천시와 안성시를 제외한 나

머지 9개의 도농복합시에서는 도시지역으로의 사업체 쏠림현상이 2012년 들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사자 분포와 관련한 도농간 비중의 격차는 안성시와 포천시를 제외하고 모두 정의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남양주시와 용인시의 도농간 격차 증가가 현저하였다.

3. 경제공간의 재편과 변화 유형

1) 경제공간의 재편

도농복합시에서 나타난 경제활동의 입지 변화는 도시지역으로의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경제공간이 차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는 개별 산업부문의 경제공간이 변화하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산업대분류 방식에 따라 일부 산업만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산업의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적용하였다. 첫째 도시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극히 낮은 업종이고, 둘째 조사항목의 변화로 인해 산업분류에 포함되는 중분류 이하의 세부내용에 변화가 발생하여 두 시기의 절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부문이다. 이렇게 해서 본 연구에서는 모두 9개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두 시기의 변화를 고찰해 보았다.

사업체 입지에서 수위를 차지한 업종은 도시별로 상이하였다. 대체로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각 도시에서 상위 3위 안에 드는 업종에 해당하였다. 분석대상 도시 가운데 2012년 기준으로 제조업 입지가 가장 탁월하였던 도시는 광주시·김포시·양주시·포천시·화성시인데, 이 가운데 포천시를 제외한 도시는 2000년에도 제조업이 가장 탁월한 도시였다. 포천시에서는 2000년에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탁월하였고 제조업은 3번째로 규모가 큰 업종이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요하는 부문의 발달을 유도하기도 한다(백영기, 2003).

도시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또 다른 산업부문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을 꼽을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은 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파주시·평택시 등 5개 도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었다. 한편 안성시와 포천시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이 2000년의 수위산업이었지만, 2012년에는 두 도시에서 제2위의 업종으로 변화하였다. 포천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조업이 수위산업으로 부상하였고, 안성시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수위산업으로 성장하였다.

두 시기에 걸쳐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은 모든 도시에서 사업체수의 규모 순위가 상승하였다. 주요 산업부문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모든 업종에 걸쳐 사업체수가 증가한 도시는 광주시가 유일하였다. 광주시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의 도시지역 증가율이 각각 61.6%와 71.7%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업종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10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을 정도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에 나름의 균형잡힌 성장 패턴을 보였다(표 3). 광주시처럼 모든 업종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성장이 나타난 도시는 없지만, 대부분의 업종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성장을 보인 도시로는 안성시·양주시·이천시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김포시·남양주시·용인시·평택시 등지의 사업체 입지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차이점이 비교적 명확하였다. 즉 이들 도시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 도시지역의 성장이 뚜렷하였지만, 농촌지역은 대부분 업종에서 사업체수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김포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에 극화현상이 심화되었다. 남양주시는 건설업과 운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용인시는 제조업과 운수업을

표 3. 주요 업종별 사업체수 변화패턴

업종	도시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양주시		용인시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제조업	+++	++++	++++	+	++	--	++	++++	-	++	-	+		
건설업	++++	++++	++++	-	+++	+	++	++++	++	++++	++	--		
도매·소매업	++++	++++	++++	-	+++	-	-	++	++	++	++	--		
운수업	++++	++++	++++	-	+++	+	++	++++	+++	+	+++	+		
숙박·음식점업	++	++++	+++	-	+++	-	+	++	+	+	++	--		
금융·보험업	++	++++	+++	--	++	--	+	-	++	불변	++	--		
부동산·임대업	++++	++++	+++	-	+++	-	+++	++	++++	+++	++	--		
교육서비스업	++++	++++	++++	--	+++	-	+++	+	++++	+	++++	-		
복지서비스업	++++	++++	++++	-	+++	-	++++	++	++++	+++	++++	--		

업종	도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제조업	+	++	++++	+	+	+++	++	++++	++++	++++		
건설업	++	++++	++++	++	++++	++	++	--	++++	++		
도매·소매업	-	+	++	+	+	-	+	-	++++	++		
운수업	++	+++	++++	+	++	++	++++	++++	++++	++		
숙박·음식점업	+	+	++	+	+	-	+	++++	++++	-		
금융·보험업	+	-	++	-	++	--	+	--	++++	-		
부동산·임대업	+++	++++	++++	-	+	-	+	++++	++++	++		
교육서비스업	++++	++++	++++	-	+++	-	++	+	--	--		
복지서비스업	+	+	++++	+	+++	--	++++	-	++++	--		

주 1) +: 0-50% 증가, ++: 50-100% 증가, +++: 100-150%, ++++: 150% 이상 증가.

-: 0-50% 감소, --: 50-100% 감소.

2) 복지서비스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가리킴.

제외한 나머지 부문, 평택시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부문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집중현상이 심화된 셈이다. 이들 도시와는 달리 파주시·포천시·화성시에서는 도시지역은 물론 농촌지역에서도 성장한 업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상에서,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는 대부분 업종에 걸쳐 사업체수의 증가현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주시의 제조업, 용인시의 제조업, 안성시의 도매 및 소매업, 이천시의 금융 및 보험업, 화성시의 교육서비스업 등은 도시지역에서 사업체수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산업부문별 종사자수의 변화도 사업체수의 변화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화성시의 도시

지역에 입지한 교육서비스업은 사업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수가 증가하였다.

2) 경제공간의 변화 유형

여기에서는 11개 도시의 사업체 입지 변화를 토대로 변화 유형이 유사한 도시끼리 군집화를 시도하였다. 군집분석에는 산업부문별 사업체수의 변화율을 변수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2000년 대비 2012년의 사업체수 증감률에 해당한다. 사업체수의 변화율은 화성시의 도시지역에서 운수업체 변화율(2,150.0%)이 가장 높았으며 화성시 도시지역의 복지서비스업(1,666.7%), 광주시 농촌지역

의 건설업(1,572.7%), 포천시 농촌지역의 운수업(1,517.9%) 등의 증가율도 매우 높게 형성되었다. 이에 반해 용인시 농촌지역의 금융 및 보험업은 같은 기간 동안 87.6%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며, 포천시 농촌지역의 건설업(-84.8%), 화성시 농촌지역의 교육서비스업(-82.0%), 용인시 농촌지역의 복지서비스업(-73.1%) 등에서는 부문별 사업체 감소현상이 두드러졌다.

각 도시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수의 증감률을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군집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5개의 군집을 도출하였다(그림 3). 군집분석은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하지 않는 계층적 군집분석을 적용하였다. 이로부터 도출된 덴드로그램에서 정보손실량을 고려하면 포천시, 광주시, 화성시가 각각 1개의 군집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도시가 1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지만, 절단선에 의해 나누어진 5개 유형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1군집에는 김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용인시가 포함되었다. 여기에 포함된 도시는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수 증가가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두드러졌다. 일부 산업부문에서는 농촌지역의 사업체 증가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격차가

심화된 특징을 보여주었다. 특히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부문은 도시지역에서의 성장이 현저하였던 반면 농촌지역에서의 쇠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 I 은 도농격차 심화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2군집에는 경기도 남부의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를 비롯하여 북부의 양주시가 포함되었다(그림 4). 여기에 포함된 도시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사업체수가 증가하였지만, 부동산 및 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는 도시지역에서의 성장이 다른 유형에 포함된 도농복합시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다.³⁾ 이렇게 본다면, 유형 II 에 속한 도시는 도농간 균형성장의 특징이 보이긴 하지만,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의 성장이 다소 완만한 도시지역 성장둔화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3군집에는 포천시가 포함되었다. 포천시는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의 사업체수 증가가 현저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증가현상이 매우 뚜렷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유형 III 에 속한 포천시는 농촌지역 성장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4군집에는 광주시가 포함되었다. 표 3에서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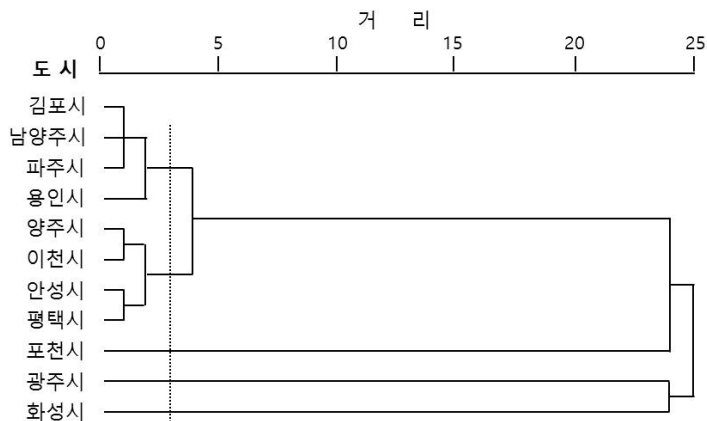


그림 3. 사업체 입지변화에 따른 도농복합시의 군집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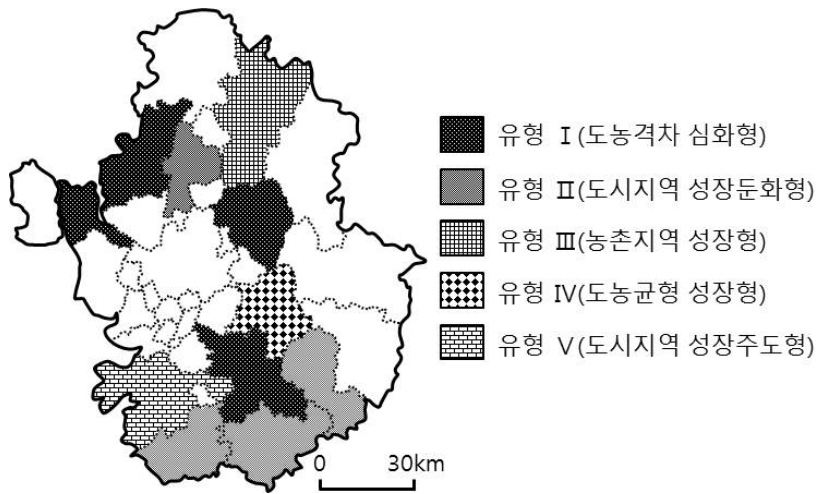


그림 4. 도농복합시 경제공간의 재편성 유형

펴본 바와 같이, 광주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모든 산업부문의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도시이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의 증가현상이 더욱 현저하였다. 따라서 유형Ⅳ에 속한 광주시는 도농균형 성장형이라 할 수 있다.

제5군집에는 화성시가 포함되었다. 화성시는 도시지역에서의 부문별 사업체수 증가 경향이 광주시와 비슷하지만, 도시지역에서의 증가율은 광주시보다 훨씬 높았다. 농촌지역에서는 제조업을 비롯한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사업체가 증가하였지만 일부 산업부문에서는 감소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유형Ⅴ에 속한 화성시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체수 증가가 진행된 도시지역 성장주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Ⅴ는 유형Ⅰ(도농격차 심화형)과 달리 도시지역의 성장과 함께 농촌지역에서도 여러 부문의 성장이 있었다.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수도권에서는 거대도시 서울이나 도시화 수준이 높은 도시에 인접한 도농복합시일수록 경제활동의 입지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도시화 수준이 높지 않은 도시일수록 농촌지역에서의 경제활동 입지가 활발해짐에 따라 도시지역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화된 특징을 나타내었다. 표 2에서 제시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사업체수는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의 행정체계 변화를 반영한 것이므로, 도농복합시의 유형화에서 나타난 각 도시의 특징을 표 2와 관련시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도시별 행정체계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도농복합시 가운데 2013년에 승격한 여주시를 제외한 11개 도시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입지의 공간재편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즉 수도권에서 도농접경지역의 성격을 가지는 도시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에 경제활동 입지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도농복합시에서는 대도시권의 교외화 진전과

더불어 경제활동의 이전으로 인구규모 및 사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인구분포에서는 도시 내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도농간 인구재배치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과 부산권을 제외한 일부 지방의 도농복합시는 인구감소와 함께 도시의 활력이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수도권에 자리한 경기도의 도농복합시에서는 모든 도시에서 인구 및 경제활동의 성장을 확인하였다. 경기도에서 사업체수 증가의 상위권에 자리한 도시는 화성시, 광주시, 용인시, 파주시 등의 도농복합시가 차지하였다. 반면 평택시, 이천시, 포천시 등지의 사업체수 증가는 경기도 평균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성장한 도농복합시에서의 사업체 입지가 활발해짐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특정 도시로의 경제활동 집중현상은 다소 완화되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경제활동의 입지가 도시간 균형을 맞추어 가고 있는 듯하지만, 개별 도시내에서는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도농복합시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사업체 입지 패턴 역시 도시에 따라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김포시와 화성시는 농촌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수의 비중이 컸지만, 용인시·남양주시 등은 도시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수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도농복합시에서 도시지역의 사업체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감소한 점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격차 변화를 토대로 도농간 사업체 입지의 불균형을 측정된 결과, 농촌지역에서 사업체 입지가 활발하였던 이천시와 안성시에서는 도농간 격차가 완화되었지만, 나머지 도시에서는 도시지역으로의 사업체 쏠림현상이 심화되었다. 한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종사자수 분포 변화에서도 도시지역에서는 사업체수와 함께 종사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 경기도 도농복

합시에서 나타난 경제공간의 재편성과 관련된 주요 특징이었다.

도시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9개 산업부문에 대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의 입지 변화를 고찰한 결과, 도시내에서 상위를 차지한 산업부문은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었다. 대부분의 산업부문에 걸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10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한 광주시를 비롯하여 안성시, 양주시, 이천시 등지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걸쳐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균형잡힌 성장을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 김포시·남양주시·용인시·평택시 등지는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도시지역의 성장이 뚜렷하였지만, 농촌지역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경기도의 11개 도농복합시에서 각 산업부문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의 사업체수 증가율을 토대로 경제공간의 변화패턴이 유사한 지역끼리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5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들 유형은 도농격차 심화형, 도시지역 성장둔화형, 농촌지역 성장형, 도농균형 성장형, 도시지역 성장주도형 등으로 나뉘었다. 수도권의 중심도시인 서울 또는 도시화 수준이 높은 밀집 시가화 도시에 인접한 도시일수록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격차는 커지는 양상을 보였고,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도시화 수준이 높지 않은 도농복합시일수록 농촌지역에서의 경제활동 입지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농복합시의 목표 가운데 하나인 성장거점으로부터의 개발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어 가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경기도의 경제부에 자리한 일부 도시에서는 농촌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부 도농복합시에서는 도시지역 위주로 도시성장이 집중되는 역류현상도 확인하였다. 도농복합시가 지정된 이후 도농균형발전이 이루어진 도시가 있는 반면 불균형 발전이 심화된 도시가 있음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불균형 발전이 심화된 도시에 대한 향후의 개발정책 수립 및 산업입지 계획 등에서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

- 1) 법률상 '도농복합형태의 시'라 불리는 이 두 가지 유형은 성격이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농복합시 또는 도농통합시로 불린다.
- 2) 2006년에 태안읍이 6개 동으로 분리 신설된 화성시와, 2011년에 교하읍이 6개 동으로 분리 신설된 파주시는 제외하였다.
- 3) 평택시는 농촌지역에서 사업체수가 감소한 산업부문이 있긴 하다.

참고문헌

김선명·김기현, 2008, “행정구역 개편안에 관한 주요 쟁점 및 평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351-381.

김성록, 2012, “산업의 지역간 파급효과에 의한 연계성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3), 424-436.

김주숙·김은영, 2003, “한국 농촌의 미래: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갈등요인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사회학회 13(1), 85-114.

도성환, 2000, “토지이용 특성별 유형화에 의한 도농통합시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Ⅱ), 529-556.

박경훈·정성관·최원명, 2000, “도농통합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특성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3(2), 37-47.

백영기, 2003, “전북지역 산업단지의 입지 및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2), 307-326.

손승호, 2013, “인구규모의 변화를 통해 본 도농통합시의 차별적 성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1), 85-98.

오영석·이근수, 2006, “삶의 질 관점에서 본 도농통합의

형평성 효과: 경주시 사례,” 한국정책과학학회 10(4), 159-183.

이상대·박재홍, 1998, 경기도 도농복합시 도시계획·관리모델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이양재·정영현, 2005, “도농통합 효과의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0(5), 25-36.

이현주·김미숙, 2011, “수도권 정책변화에 따른 산업입지 수요의 변동,”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2), 286-306.

임정빈·장우형, 2009, “도농통합의 정치경제: 청주시·청원군 통합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24(1), 233-265.

정미영, 1997,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의 효과분석,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석주·이재기, 2000, “시·군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비용절감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5(1), 113-142.

홍준현, 2005, “시군통합이 지역내 및 지역간 균형성장에 미친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290-325.

Becker, F., 1996, *Fragmentation of Municipal-level Services and the Erosion of Planning Capacit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utheastern Conference for Public Administration.

Blair, J.P. Staley, S.R., and Zhang, Z., 1996, The Central City Elasticity Hypothesi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2(3), 345-353.

Carr, J.B. and Feiock, R.C., 1999, Metropolitan Govern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Urban Affairs Review*, 34(3) 476-488.

Downs, A., 1994, *New Visions for Metropolitan Americ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Johnson, J.H.(ed.), 1974, *Suburban Growth: Geographical Process at the Edge of the Western City*, New York, Wiley.

Pryor, R. J., 1968, Defining the Rural-Urban Fringe, *Social Forces* 47(2), 202-215.

Rigos, P., 1995, *Metropolitan Governance Polic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utheastern

Conference for Public Administration.
Rusk, D., 1993, *Cities Without Suburb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교신: 손승호, 136-858,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90 노
블레스타워, (사)미래한국영토포럼, 전화: 02-
917-6090, 이메일: urbgeo@hanmail.net

Correspondence: Seungho Son, Korea Future Territory Fo-
rum, Noblesse Tower, 90 Jongam-ro, Seongbuk-
gu, Seoul 136-858, Korea, Tel: 82-2-917-6090,
E-mail: urbgeo@hanmail.net

최초투고일 2015년 2월 12일
수 정 일 2015년 2월 27일
최종접수일 2015년 2월 29일